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최진혁 과장 (2110-5151), 이영주 사무관(5158) 소프트웨어진흥팀 문병철 과장 (2110-4591), 신동협 사무관(4592)	

빅데이터(Big Data)에 빠진 지경부

- 윤상직 제1차관 주재, 지경부 직원대상 브라운백 미팅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5월 17일(목), 윤상직 제1차관이 직접 주재하고 정보통신 담당 국과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, 삼성경제연구소 채승병* 수석연구원을 초빙하여 '빅데이터의 이해 및 추진전략'에 대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였음

* 「빅데이터 : 산업 지각변동의 진원」 저자(SERI CEO Information, 5.2)

▶ **빅데이터** : 규모가 매우 방대한 동시에 형식이 다양하고 순환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·분석이 어려운 데이터

□ 금번 회의는 최근 빅데이터가 IT분야의 최대 화두이자 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수단으로 부각되고,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민·관의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,

* 미국은 연간 2억달러 이상 투입하는 '빅데이터 이니셔티브' 추진('12)
  - 보건·국방·에너지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R&D·인력양성·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

○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지경부 직원들의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지경부 차원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임

□ 이 자리에서 채승병 수석연구원은, 우리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며, 빅데이터發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,

○ 기업은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사내외 데이터 공유 및 통합관리를 지원하고, 정부는 제도정비 및 양질의 공공 빅데이터 공급·시범사례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하였고,

○ 이에, 윤 차관은 지경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, 모든 소관 분야 담당자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전략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음

□ 이에 따라, 지경부는 신설된 소프트웨어진흥팀을 중심으로,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·R&D를 통한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·관련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

참 고 **빅데이터 브라운백 미팅 발제 요약**

□ **빅데이터의 급부상**

○ 스마트 인프라 보급, 빅데이터 관리·분석기술 발전, 사회적 인식제고 등 여건 성숙으로 빅데이터가 경제·사회현안 해결의 실마리로 급부상

□ **빅데이터의 잠재가치**

○ 기업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 맞춤형 상황기반 서비스 제공
⇨ 超경쟁 시대에서 경쟁사를 능가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

□ **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**

○ 구글·아마존·페이스북·애플 등은 핵심 서비스 무료·염가 제공, HW·SW 기술 공개를 통해 천문학적 빅데이터 축적중

○ IT산업 이외 기업들도 업무 효율성·의사결정 능력 향상, 경영상 문제 해결, 미래 新서비스 기획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영역 확대

□ **한국 기업의 현주소**

○ 한국 기업들은 ① 빅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경영현장, ② 소모적 데이터 활용행태, ③ 지식기반 취약 등으로 빅데이터 수준이 크게 미흡

□ **빅데이터發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필요**

○ 정부는 제도정비 및 양질의 공공빅데이터 공급·시범사례 확대, 기업은 최고 경영진 차원의 데이터 공유, 통합 관리 지원 및 데이터 활용전략 수립과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